

서남 가정예배서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성남 가정예배순서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59장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 마7:7-11 -----	말 은 이
말 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말 은 이
찬 송	----- 438장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7:7-11

-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7-8절)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구하면서도 이것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사실을 확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9-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아비도 자기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떡이 필요한 데 그것을 뺏히 알면서도 먹을 수 없는 돌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1절)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을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행복가득한
 새해되세요